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풍성케 하실 9월을 기대

### 건축헌금작정, 열린바자회,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성경대학 개강, 다락방 모임, 지도자 양성반, 70인 전도대 재개

우리 교회는 9월을 맞아 중요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9월 3일(주일)에는 1, 2, 3부 예배시간에 건축을 위한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다. 특히 이번 건축헌금 작정은 금년 12월 25일 입당을 앞두고 뼈를 깎는 심정과 재산의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정성을 드려 바치는 건축헌금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헌신이 요구되는 때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9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계속될 열린바자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전 교구가 총동원 되어 건축을 위한 바자를 시행하므로 교회사랑, 봉사, 헌신, 그리고 정성을 보여줄 기회이다. 이 행사를 위하여 각 교구별로 특정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고 위탁상품과 기증된 상품을 취급함은 물론이고 엄선된 식사류와 간식을 판매할 예정이다.

18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정보

화시대의 교육목회와 교회성장의 주제로 매주 월요일 강남의 YMCA 강당에서 개최된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님의 사도행전연구가 계속되고 제 2교시에는 주제에 따른 10명의 강사가 초빙된다.

제 8학기 서울성경대학교도 9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미 발표된 계획대로 개강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양성의 기회로 삼게 된다.

이번주 금요일(9월 1일)은 그동안 쉬었던 다락방 모임이 개학하는 날이다. 다락방장 공부는 수요일(8월 30일) 1, 2부 예배후 갖게 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지도자 양성반(다락방장 반)이 매주 수요일 1, 2부 예배후와 목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열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기도와 전도를 실천하던 70인 전도대도 이번주 토요일(9월 2일)부터 다시 활동을 개시한다.

## 다음 주일은 "건축헌금" 드리는 날 - 재산의 십일조를 바치기로 -

오는 9월 3일 주일 1, 2, 3부 예배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날로 정하고 온 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왔다.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의 영광을 얻은 우리는 이번에 재산의 십일조를 드림으로 감사와 헌신을 표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주님 필요 할 때 바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한편 추석전 9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열린 바자를 개장하여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앞에 부었던 여인의 심정으로 내집에 소장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위해 바치기로 했다. 억지로 하는이나 체면으로 하는이가 없도록 기도하면서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물품 기증은 이미 사무국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교구별로 할당된 목표액수를 위해 정성과 힘을 모으고 있다.

### ◆ 9월 교회 행사 계획 ◆

일 지	행 사
9월 1일	다락방 모임 재개
9월 2일	70인 전도대 개학
9월 3일	건축헌금 작정, 정기제직회, 대학부 헌신예배
9월 6 ~ 8일	바자회
9월 18일	제 1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9월 18일	제 8학기 성경대학 개강
9월 20일	제 2기 지도자 양성반 개강
9월 23일	2차교육 피택집사, 권사 교육
9월 24일	새가족 환영회

### 다음주 부터 영어 동시 통역 한다 - 주일 2부 예배시 -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 주일 2부(11시) 예배시 영어 동시 통역이 이루어 진다. 한국어가 서툰 이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기 위해 안내위원들에게 라디오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예배위원회에서는 라디오의 관리를 위해 신분증을 맡긴 후 사용후 반납하면 다시 신분증을 찾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시아강해

# 번영의 위기

성경 : 이시아 39장 1 ~ 8절



이중운 목사

\*\*\*

위기는 실패할 때 보다 득세할 때 오는 법입니다.

## 1. 히스기야의 허세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던니”(대하 32:24 - 25).

이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고와 재물과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바벨론 왕 므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 축하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한 것은 하나의 구실이었고 사실은 일영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숨은 정치적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계를 모른 히스기야는 흥분해서 바벨론 왕의 사신을 환영하고 동맹을 맺자는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의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궁궐과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 (1) 사대주의적 아부행위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사 38:2).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인간적 처세술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의지하려고 합니다.

### (2) 세상 보화를 자랑한 행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국보를 보인 것은 하나님 보다 세상 보화를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에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빨리 타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린 채 마음을 보물에 두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평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 2. 선지자의 책망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왕을 책망했습니다. 이시아는 왕 앞에 나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시아가 몰라서 묻은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대답하는 태도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진실성 있는 죄의 고백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지자에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의 정직한 고백은 있었으나 그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선언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시아의 심문에 대한 죄책감을 확실히 가졌는지가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범한 죄를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 전체의 죄를 벌하시려고 왕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버려 두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앗수르를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바 있습니다(사 31:1 - 3). 히스기야의 기도로 앗수르군은 물러갔으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버려 두심으로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있고 궁중 보물과 무기를 자랑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죄값으로 히스기야에게는 그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는 환난이 올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 묘한 보응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6절).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때때로 권세자들이 면죄되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합니다. 이시아는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책망했고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 3. 징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다

이시아의 책망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말씀이 좋소이다’(8절)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8절)라고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용으로 자기 당대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을 황송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받을 벌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은 회개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평안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생전에 번영을 구한 왕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번영은 하나님 뜻과 원칙을 떠났을 때 재난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진노 중에서도 공물을 잊지 않습니다(합 3:2). 히스기야는 징계를 받되 견딜만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네 나이가 얼마나?

이종윤 위임목사

내 나이가 오늘로 예순이다.  
 나이 값을 해야겠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달라져야겠다. 나이 값을 못하는 지진아처럼 살아온 지난 날이 부끄럽고 한스러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이제라도 나이 값을 해야겠노라 다짐해 보며 받은 사명 감사하며 기도 드린다.

내 나이 지금 60이다.  
 자리 값을 해야겠다. 내가 타고 온 천국행 나그네 열차도 종착역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있다. 네 연세가 얼마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 가며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는 출발지 보다 종착점이 더 가깝

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기원한다.

내 나이 올해로 육순이다.

사람값을 해야겠다. 백년을 넘기지 못할 주제에 반년을 꿈꾸는 어린석은 것이 인생인가. 서리병아리 독수리에게 채워가듯 홀연히 사라질 인생이어늘 허황된 생각일랑은 하지도 말자. 여생을 하나님의 사도답게 믿음으로 지혜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싶다. 인생이란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고 의지할 상대가 못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한다.

2000년 8월 23일      뉴욕에서

## “열린바자”의 승리를 확신하며

박철훈 장로(열린바자 집행위원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에 서울교회는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첫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그간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셨고 인내와 절제와 그리스도 사랑의 도를 가르치면서 지하 3층부터 시상 8층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부공사 역시 힘있게 진행되어 12월 25일 입당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하여 서울교회는 재산의 십일조를 드리는 깊은 심정으로 9월 3일 건축헌금과 건축헌금 작정을 하며, 9월 6일부터 8일까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열린바자가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표를 삼았다.

이종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인간 100%, 하나님 100%하면 완전한 100%로 성공을 이룬다고 하셨다. 교회가 쉽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로 지어지며 세워져 나간다.

팔짱을 끼고 눈치를 살피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교회를 자기가 이끌어 가듯 큰소리치며 외치는 허세가 큰 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되어 직분에 걸맞게 헌신해 보자는 것이다. 직분은 내세우면서 조용히 그리고 아무적

분 없는 성도로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들만도 못한 나는 아닌지,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열린바자에 힘을 쏟아 보아야겠다. 각 교구에게 맡겨준 목표를 채워보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재산의 십일조가 얼마나 되는지 이 기회에 계산해 보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볼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열린바자를 통하여 교구의 단합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웃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될지언정 무거운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자 한사람도 없도록 기도하여야겠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고 벌써 전체교구들이 열린바자를 위하여 모임갖고 계획을 세우며 기도를 갖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공적인 열린바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 점포별 판매 물품

열린바자 판매관리부에서는 점포별로 결정된 판매 예정 물품을 아래와 같이 접수를 받았으며 계속하여 접수를 받아 점포별로 분류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점포별	판 매 예 정 물 품	점포별	판 매 예 정 물 품
1 점 포	가정상비약, 의류	7 점 포	구두, 신발, 의류, 식혜, 김치, 돈보기안경, 복사지, 무지개색종이
2 점 포	선물용 비누, 치약, 참기름set, 게르마늄 목욕수, 김장 새우젓, 무짬아치, 깻잎, 고추장, 호박죽, 팔죽, 썩개떡, 감자전, 의류(마담앙스, 까르벤 정), T-셔츠, 속옷, 가방, 금강구두포	8 점 포	교육용CD, 주유권, 수수전병, 양파짬아치
		9 점 포	모피, 스타킹, 양복, 한우사골, 유가, 숙련복, 고추, 만두, 가지전, 짬아치
3 점 포	가전제품, 오징어볶음	10 점 포	순창 기능제품(고추장, 된장, 디덕짬아치), 북어무침, 멸치, 미역, 다시마
4 점 포	햄살, 포도, 참나무향주머니, 표고버섯, 과일, 잣, 호도, 대추, 밤, 마늘, 찬송가전곡CD, 롤러스케이트, 여성정장, 일회용 티슈, 잡채	11 점 포	엔진오일, 슬리퍼, T-셔츠, 녹두 빈대떡, 세탁봉
		12 점 포	고추, 까나리액젓, 해물전, 순대, 떡볶이, 잡채, 의류(라코스테, 아놀드 퍼버)
5 점 포	약세사리(팔찌), 의류, 화장품(소망삼푸)	위탁점포	LG전자제품 일체, 화장품(수입품)
6 점 포	선물용set(제일제당), 오징어, 황태, 감귤, 건강식품(생식), 정육set, 장어구이set, 탁상시계	특관점포	기증품(보석, 도서, 서예, 그림, 도자기 등)

